

종합방지시설업체 공도실업

— 신기술 도입을 도모하는 종합방지시설업체 —

공도는 항상 더 맑고 더 푸른 환경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책임지겠습니다.

■ 편집부

친절, 그리고 봉사정신을 사업신조로 5년을 한결같이 일해왔고, 덕분에 그간 시공해 온 200여개 업체의 시설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공도의 직원들이 애쓴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 김영배사장의 말이다. '84년초에 토목, 상하수도 등 건축업으로 출발했으나 오염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파괴되는 현실을 보고, 자연을 살리는 하나의 일환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업(종합 제65호)으로 업종을 전환하게 되었다 한다.

현재 공도실업은 경기도 고양군에 300여평의 공장을 갖추고, 수질분야에 용수처리, 순수처리, 초순수처리 시설의 설계시공을 전담하며, 대기분야에는 각종의 집진기, Scrubber, Paint Booth, 공조시설, 소음및 진동방지시설, 악취제거시설에 이르기까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공능력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에 따른 제반설계와 감리 용역 업무도 다루고 있다.

공도에는 토목, 전기, 기계기사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다양한 사업종목을 훌륭히 뒷받침할 수 있는 15인의 정예 두뇌들이 있다. 그리고 대기와 수질에 분석실험 요원이 따로 있고, 40여명의 생산직원이 있는데 이들은 칠따라 야유회와 매월 회식을 가지며 모두가 한 가족처럼 지낸다.

지난 8월에 시작하여 이달에 완공을 보는 삼광광업소(금광)의 1천톤 규모 광해폐수시설 공사는 공도가 수주한 최대규모의 공사로서 광산폐수시설로는 동양 최대의 큰 공사라고 한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공사에 착수한 남원 성광제지의 폐수처리시설은 일본의 기술을 참고하여 성광제지의 조건에 적합하도록 자체 기술개발 하여 적용하는 경우로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는 신기술개발을 지향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공도의 비즈니스 정신에서 비롯된 사업실적이 아닌가 한다.

환경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부실공사가 전제된 덤핑가격의 조장 분위기이며 컨설팅 노력이 무시되는 것, 그리고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본업의 효율화를 기할수 없는 점이라고 한다. 업계의 이러한 여러가지 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구책으로서 동사의 김윤걸회장은 내년에 방지시설업체 조합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김회장은 사업장의 환경관리인들에게 “소신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89년 초에 일본과의 기술제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공도실업은 조용히 신기술 도입과 개발에 힘쓰는 의욕적인 환경기업임을 알 수 있었다. 